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인도자 : 가족중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560장** 다 같이

1.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2.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3.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 아멘 -

기도 인도자

성경말씀 **신명기 6:5** 인도자

“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설 교 「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가정** 」 말 은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만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만 사랑 할 수 없고, 사랑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우리의 전부가 동원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그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도 사랑과 관련된 것인데, 가장 명료하게 계시된 형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사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므로 ‘내가’ 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첫째,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호와 판단에 따라 사랑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원수였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롬 11:28). 회개하고 돌이킬 자세가 되어 있다거나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질 때, 상대방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 최소한 그런 기미라도 보이는 때가 인간의 사랑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원수된 상태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랑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 생명조차 사랑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순수한 개념의 사랑보다 이윤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사랑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타인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과 영혼과 성품,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충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여 사랑하며 살고 있노라고 스스로 속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한순간 결단하여 닭이 계란을 낳듯 썩 내밀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가 그런 사랑을 본보여야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눕거나 엎거나 앉거나 일어날 때 말씀을 말하고, 이마와 손에도 말씀을 묶어 주며, 문설주와 입구에도 말씀을 붙여 범사에 항상 연습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훈련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인 동시에 사랑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565장 다 같 이

- 1.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 2.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는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 3.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기도문 다 같 이

(교 재)

율법을 묵상하고 지킨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 지키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성도는 그것을 생명으로 삼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 생명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붙잡을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2021 추석명절 가정예배순서지

